

## 意識發展의 辨證法的 過程(三)

### 헤겔哲學의 한 顛倒的 應用

裴相河

헤-겔哲學과 맑스理論과의 接觸點에 關한 添言.

헤-겔哲學과 맑스理論과의 接觸點 自體를 論述하려 함이 아니다. 이는 너  
머나 廣大한 그리고 複雜한 問題이기 때문이다. 兩者 間의 接觸點을 細細히  
論述 할 수 잇슬려면은 吾人은 그 먼침 兩者의 立說 全部를 吾人의 掌中物  
처럼 □使 할 수 잇기까지 體得한 後에야만 可能 할 것이다. 이는 現下의 吾  
人으로써는 到底히 企及키 어려운 바이며 쏘는 本論에 잇서서 그다지 重要  
치도 안흔 것이 매 兩者 間의 細細한 接觸 點의 解明은 後日의 宿題로 미루  
어 두고 接觸點의 存在를 前提삼음으로써 接觸點 探求에 關한 한 方法論만  
을 論述하여 볼까한다. 換言하면 本章은 헤-겔 哲學과 맑스理論과의 接觸點  
의 問題가 맑스主義의 어느 部門에 잇서서 問題되지 안흐면 안이 될 것인가  
에 關한 簡單한 添言에 지나지 안는다.

× ×

理論과 實踐을 區別 할 수 잇다는 論者가 잇다. 理論과 實踐을 區別하지  
못한다는 論者가 잇다. 理論과 實踐을 區別하는 論者 가운데서도 理論이 先  
行이란 論者가 잇고 實踐이 先行이란 論者가 잇다. 그러나 理論과 實踐에 關  
한 이 모든 論爭은 『하나』에 잇서서 總合되고말 一體 兩面□에 지나지 안는  
것이니 어떠한 理論이든 어떠한 實踐이든 어찌한 『하나』를 實現하기 爲한  
쏘는 完成하기 爲한 서로히 도읍지 안흐면 안이 될 兩 經路임에 지나지 안  
는다. 그럼으로 根源的으로 볼진데, 兩者는 決코 區別 쏘는 分類되지 못 할  
關係에 잇다. 理論업는 實踐은 盲目이요, 實踐업는 理論은 空虛이니, 싸라서  
理論이 先行 함도 안이요, 實踐이 先行 함도 안이요, 兩者는 並行的 關係에  
서 相互□助的으로 『하나』의 實現에서 結合된다.

이와 가티 根源的 쏘는 目的도 할 수 업는 바이다.

이에 싸라 맑스主義에 잇서서도 쏘한 理論과 實踐과를 根源的 아닌 表面的

또는 過程的 □□에서 區別 할 수잇슬 것은 以上の 論理로써 自明하다. (여기 關한 細細한 論述을 □한다. 讀者는 誤解하리라.)

그러면 여기서 問題를 바로 접어 『헤-겔』哲學과 맑스理論과의 接觸點은 어느 部門에서만 問題 될 것인가? 哲學은 統一이다. 따라서 모든 理論의 一實的 基礎를 뜻한다. 그럼으로 맑스主義도 그의 統一的 哲學的 基礎에 잇서서 『헤-겔』의 辨證法을 如何한 □式으로 應用 또는 □取하였는가? 『포이엘맞하』의 唯物論과는 어셔□ 共□되며 또는 相異되는가? 그 以上 더 멀리 形而上學的 唯物論과는 어느 點에 關해서 背□되는 것일까? - 등의 哲學的 基礎 問題 더구나 이 中에서도 辨證法이란 點에 잇서서 맑스와 헤-겔이 어셔한 □□에서 相合 또는 背□되는가의 問題는 勿論□刻히 徹底히 問題삼지 안흐면 아니 될 問題이나마 이곳서 또한 깊히 생각 할 바 잇스니 이와 가튼 哲學的 基礎 그 中에도 헤-겔 哲學의 辨證法가튼 것은 到底히 短時日로써 體得하기 어운 것이며 또는 이미 맑스理論 그것만으로써 完全한 것으로 信奉하며 그것의 實踐에 分□를 다루고 잇는 實踐家에 對해서 헤-겔의 辨證法으로써 맑스理論 한 개의 基礎를 니루고 잇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探求하라고 動할 何等의 必要가 업다는 點이다. 簡單하게 말하자면 맑스理論과 헤-겔哲學과의 關係 가튼 哲學的 問題는 맑스主義의 實踐 또는 實踐家에 잇서서 그 다지 重要치 안흔 問題이라 할 수 잇다.